

윤, '불통' 이미지 극복... 이, 범야권 리더 자리매김

尹-李, 영수회담 의미와 과제

첫 만남 의의...소통 필요성 공감대 이, 국정운영 한축...정치자산 확보 민주당 "기대 컸지만 변화 찾지 못해"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는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앞으로도 종종 만나겠다고 합의한 만큼, 향후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다만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는 물론 추후 만남이나 정례화가 논의되지 않았고, 회담 이후에도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독선과 오만,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을 거듭하던 거대 야당과의 관계가 이날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협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야당과 소통했다는 것만으로도 국정 운영을 쇠신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이 진행된 29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영수회담을 시청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는 야권의 지도자 이미지

를 구축하는 한편,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완화시킨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192석의 범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자산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다.

이 대표의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작성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의혹 특

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은 물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표명도 촉구했다.

의제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며 애둘러 요구했다.

사실상 야당 대표로서 제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현안을 영수회담 의제로 선제적으로 올렸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크게 기대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윤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다. 회담에서는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며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이번 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해외서 한달 살기... '광주형 청년갭이어' 운영

시, 19~39세 청년 30명 모집

광주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한달 간 살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형 청년갭이어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29일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Gap) 기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해외 청년갭이어 활동을 지원하는 '2024 광주형 청년갭이어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5월24일까

지 29일 간이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광주시는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1:1 컨설팅을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주간 해외 갭이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갭이어 공식사이트(<https://koreagapyear.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자의 개인 프로젝트 계획서 및 자격기준 등을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광주경제자유구역 장성·함평 편입 유감"

"해당 기초지자체 자치권 위축"

전남도는 29일 광주시가 총선 공약과 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함평과 장성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

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게 된다"며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자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과 재정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일례로 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원이 소요된다"며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단과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

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함평·장성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곽지혜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